

소리로 보는 세상



테마기획

신년사

인 터 뷰

일본의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후쿠오카교육대학교 한성민 교수님

포 커 스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후
'점자' 관련 다양한 연구보고서 발간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정유년

04 | 테마기획 - 신년사



08 | 인터뷰 - 일본의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후쿠오카교육대학교 한성민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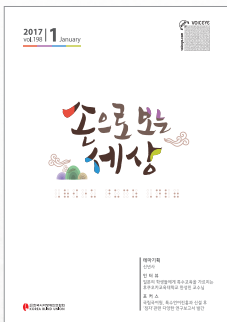
10 | 포커스 -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후 '점자'관련 다양한 연구보고서 발간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3박 예찬 / 정영진(시각1급_부산광역시 동래구)

13 | 월드 리포트 - 드림웍스, 시각장애 아이에게 잊지 못할 선물 전해
- 미국, 시각장애인 자율주행차 단독 시험운행 성공!

14 | 뉴스앨범 -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열려
- 2016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 열려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2016년 노원구청장 기관표창 수상
- 2017년 첫 프로그램, 하모니카 교실 열려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을 탈 때



손으로보는세상 2017년 1월 198호

발행일 2017년 1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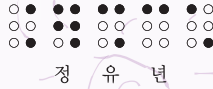
T 02,799,1043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한글
①④
②⑤
③⑥

| 점자일람표 | | | | | | | | | | | | | | | |
|-------|----------------|----------------|----------------|----------------|----------------|----------------|----------------|----------------|----------------|----------------|----------------|----------------|----------------|----------------|----------------|
| 자음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된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받침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음 |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자 | 가 | 나 | 다 | 마 | 바 | 사 | 자 | 카 | 타 | 파 | 하 | 억 | 언 | 얼 |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어 | 그래서 | | 그러나 | | 그러면 | | 그러므로 | | 그런데 | | 그리고 | | 그리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숫자 | 수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장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영어시작 | 끝 | 대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 지, 초, 씨, 썬]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I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병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가 저물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도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하여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고 우리 시각장애인 계에서도 활동지원제도의 불합리성이 표면에 드러났고 점자법이 제정되는 등 많은 일들이 숨 가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는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싸우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인에 비해 등급 심사 및 판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 서비스 등급이 대거 하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국민연금공단에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원 면담 및 담당자 면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7월 26일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정조사표 등의 개선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점자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점자규정은 2006년 개정된 이래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를 국립국어원에 제안해 한국점자규정 개정안을 도출하고 지난 12월 국어심의회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개선된 한국점자규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합 교육을 통해서만 점역교정사와 보행지도사를 양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의 지변확대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개설한 보행지도사는 이론편 34강, 실기편 11강을 개발

홈페이지에 탑재해 보다 쉽게 누구나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점역교정사는 점자규정의 개정과 맞물려 온라인 강의는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 서울권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을 권역별로 강의를 개설해 점역교정사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중도시각장애인의 재활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는 2015년 사업평가 결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지난해에 비해 5개 지회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활상담을 강화하여 2인의 상시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시각장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000여건의 재활 상담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안내 방송 서비스에 대한 개선, 시각장애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교류 연수 강화, 시각장애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확대, 6급 시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 가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한 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역량확대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2016년에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기 마지막 해를 우리 100만 시각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각장애인 차별적 요소 철폐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은 활동지원서비스 재판정으로 인하여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타 장애인에 비해 20% 이상이 등급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정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였고 현재 시각장애인 전문가 및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는 1/4분기 내에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직업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시각장애인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국가 및 지자체 3.2%, 민간 2.9%)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고용률은 1%도 안 되고 있어 시각장애인 직업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보장된 안마 업조차도 무자격 불법 마사지사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 직종 개발 및 전문 훈련 기관 설치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격제도의 확대 개편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점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점역교정사에 대한 국가 자격 획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점역교정사를 세분화(점역사, 교정사, 점자지도사)하여 국가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온라인 강의 개발을 완료한 보행지도사가 국가공인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보다 양질의 보행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내실화를 꾀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급제 개편이 2017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2차 시범사업에 이어 3차 시범사업이 2017년에 예정됨에 따라 연내 개편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법 등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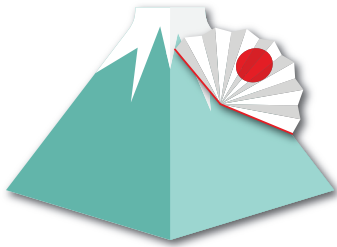
다섯째,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의 복지 발전을 위한 공약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각 정당에서 대선공약으로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이 공약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계 의견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지부지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약개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해 시각장애인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질적 수준 보장, 가전제품 등 생활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모바일 접근성 보장 등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많습니다. 제 임기 중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 국면으로 인해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100만 시각장애인계가 하나 되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병돈





일본의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후쿠오카교육대학교 한성민 교수님

일본 후쿠오카교육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시각장애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성민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후쿠오카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전공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별지원교육,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 전공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애영역을 5개로 나누어 특수교육의 전공과목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각장애는 그 중 하나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맹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 유학길에 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대학을 입학하려고 했던 1995년경에는 장애인들이 대학을 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어 접자를 공부하려니 너무 어렵게 느껴져 익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인데 목자로 영어를 쓰려니 한글이 보이지 않았고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한국에서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를 배우게 되었고 일본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일본 후쿠오카교육대학교의 교수가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저는 간사학원대학에서 실험심리학 중에서도 촉각 인지를 전공하였습니다. 촉각인지는 점자를 읽을 때 어떤 뇌파가 나오는지 알아보고 실험하는 것인데, 졸업 후 파나소닉 연구회에서 근무하다가 KGS (점자정보단말기의 점자 셀 만드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KGS에 다니면서 장애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을 할 때 일본 동경대 첨단과학연구소에서 2년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의 국내와 일본의 현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의 특수교육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진 못해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장 큰 차이라면 특수교육을 전공한 후 학생들의 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이 특수학교 교사가 되거나 특수학급을 맡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면 일반 학교의 교사도 될 수 있고, 특수학교의 교사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수업에 한국인 학생도 있나요?

부산교육대학교가 저희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종종 들곤 합니다.

박사님처럼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통해 전문을 넓히고 국내의 시각장애인 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유학길에 올랐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시간낭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망설이는데 해외에서 보고 들으며 쌓는 경험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다녀와서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미래에 더 큰 행운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으로 유학을 꿈꾸는 학생이 있다면, 일본은 언어도 한글과 많이 닮아 있고 문화와 환경도 비슷하기 때문에 유학하기 아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후 ‘점자’관련 다양한 연구보고서 발간

시각장애인에게 빛이 되는 점자,
2016년에는 점자에 대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을까요?



국립국어원은 올해 특수언어진흥과를 신설하여 점자, 수어 등 특수언어의 보급과 사용환경 개선 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연구를 위탁하여 ‘점자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2017년 1월, 이번 연구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연구는 총 3가지 주제로 점자 규격 표준(안) 개발,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 과정개발 연구, 유니코드(특수기호 등) 표준을 고려한 점자·점형 체계 표준화 연구인데요,

첫 번째로 ‘점자규격 표준(안) 개발’ 연구는 점자의 표준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의 규격에 대해



조사하고 종이, 스티커, 알루미늄 등 각 매체별로 시각장애인이 촉지하기에 가장 알맞은 점자규격에 대해 연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중도에 실명하는 사람들이 점자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과정이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 결과와 함께 기초과정, 숙련과정, 전문 과정으로 구성된 점자교육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코드 표준을 고려한 점자·점형 체계 표준화’ 연구가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와 기호 등을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인데요. 이번 연구는 이와 같은 유니코드를 점자로 표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8,011개의 유니코드 문자를 대상으로 우리말 명칭과 상세설명을 정의하여 점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2016년은 점자법이 제정되는 등 점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던 한 해였는데요. 앞으로 점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계속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점자를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문자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3박 예찬

정영진(시각극_부산광역시 동래구)

올봄 부산점자도서관에서 문학교실 강좌가 열렸다. 문학의 여러 장르를 공부하던 중 수필 시간이었다. 윤오영 작가의 '꽃감과 수필'을 읽어주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너무 좋은 글이라 입이 짝 벌어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을 뒤져 수필집을 내려 받았다.

여러 번 '꽃감과 수필'을 읽으며, '나만의 자연스러움을 그려낼 수 있는 과일은 없을까?' 상상의 세계를 수놓았다.

놀랄 만큼 참한 글감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몇 날을 옥상에 올라가 분에 물주기를 끝내고 둘러 보다 잎이 넓적넓적한 호박잎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제법 축구공만큼 커가는 호박을 만지는 순간 짜릿한 감이 손끝을 타고 올라 왔다.

"그래, 이것이야! 3박이다!"

수박과 호박, 또 하나는 어린 시절 물을 받아먹던 큰장독에 떠있던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났다.

소설을 수박에, 시를 호박에 비유한다면 수필은 박으로 비유 해보겠다. 수박은 서양에서 들어온 과일이라 하여 서과라고도 부른다. 잘 익은 수박은 팽팽해서, 식칼을 꼭지 부분에 반쯤 밀어 넣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쪼락 갈라진다.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수박 속 인물이 드러난다. 한 번의 칼질로 배경이 바뀌는 수박. 초록의 껍질 속에서, 발간색의 주제가 펼쳐지고, 새카만 사건들이 흑진주처럼 박혀 있다.

수박을 초승달 모양으로 쪼개어 양손에 잡고 하모니카 불듯이 물을 줄줄 흘리며 아귀아귀 먹어대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배불리 먹은 후 남는 것이 껍질이라 뒤처리하기가 성가시게 여겨지지만 여기 또 다른 기막힌 맛이 숨어 있다. 다 먹고 난 수박껍질을 깎아 하얀 부분을 도려내 오이 채 썰 듯이 만들어 소금에 절인다. 잠시 후 꺼내어 짭 짜 마늘과 생강이 들어간 양념으로 버무리면 수박 냉채가 완성된다. 선홍의 맛과 달리 여름 밥상의 시원함을 더해주는 일품요리다.

수박은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다양한 변화를

지닌 소설만큼 그럴듯한 과일이다.

호박은 세 종류로 동양계 호박, 서양계 호박, 멕시코가 원산지인 페포계 호박으로 나눈다.

주먹만 한 애호박은 연하여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호박볶음을 해먹었다. 시퍼런 호박을 따지 않고 울타리에 키우면 가을에 울퉁불퉁 누런빛을 띤 호박으로 변한다. 누렇게 잘 익은 호박의 속은 황금빛 노을만큼 곱다. 껍질이 단단해 칼로 자르기가 쉽지 않으나 반으로 자른 호박의 향은 싱그럽다.

수박이나 호박과 달리 박꽃은 밤에 핀다.

하얀 암꽃에 열매가 달려 보름달같이 둥글게 자란다. 가을이 오면 지붕위에 흰 살을 드러내고 방긋 웃는 박을 내린다. 허연 박을 톱으로 썰어 속을 긁어낸 뒤에 응달진 곳에 말린다.

큰 것은 물바가지로, 중간치는 쌀바가지, 더 작은 것은 쪽박으로 사용 됐다. 그 외 먼 길을 갈 때나 놀러 나갈 때 물이나 식혜를 담아가던 조롱박도 있다.

찌든 살림을 살다보면 궁핍한 생활에 짜증이 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 죄 없는 바가지를 던졌다가 다시 주워 보리쌀을 담아 박박 문지른다. 여인네들에게 늘 가까이 하며 눈물과 웃음을 받아 담던 밥그릇이었다.

박이 지니고 있는 맛과 식감은 어떤가. 박은 성질이 오이나 참외처럼 차다. 담백함은 호박이 지닌 단맛과 달리 개운하다. 곱게 말린 박고지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 이뇨작용에 좋고 열이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중히 보관했다가 명절 차례나 제사상에 올리는 탕에 들어가야 할 필수 재료였다.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때 묻은 박 같은 삶이 수필이다."

나무도 아닌 한 해 살이 풀인 3박의 삶이 '살신성인'의 우아미다. 새싹이 움트고 줄기가 쪽쪽 뻗으면서 넓적넓적한 잎사귀는 싱그러움을 듬뿍 준다. 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어 인간에게 이로움을 준다. 녹색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열매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역할을 다한다. 또 엘레강스한 문학과 어우러지니 어찌 3박이 칭송받지 않겠는가.

드림웍스,

시각장애 아이에게 잊지 못할 선물 전해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가 ‘슈렉’을 사랑하는 시각장애 아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영국 웨일즈 몰드의 패트릭 히튼(Patrick Heaton)은 생후 6개월 대 ‘대뇌 시각장애(CVI)’를 진단받고, 현재 강한 조명이 나 밝은 빛이 없으면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슈렉이나 쿵푸팬더와 같은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패트릭은 만화 속 캐릭터를 직접 보는 게 꿈이었는데요. 이 사연을 접한 드림웍스는 패트릭에게 영국 리버풀에서 열리는 캐릭터 조명 전시장 ‘드림웍스 라이트’에 참석할 수 있는 무료티켓을 선물했습니다.

패트릭은 화려한 등불로 꾸며진 커다란 만화 캐릭터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으며, 패트릭의 어머니 릴리(Lily)는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

시각장애인 자율주행차 단독 시험운행 성공!

지난 13일, 구글은 법적 시각장애인이인 스티브 메이헌이 탄 자율주행차가 동반자 없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쥘리 모양을 띄고 있는데요. 시험운행에 참여한 메이헌은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를 눈을 감고 탔을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운전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듯이 자율주행차는 매우 훌륭히 운전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 웨이모의 CED인 존 크래프치크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의 성공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의 성공은 근 10년에 걸친 구글 엔지니어들과 직원들의 테스트를 거친 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확신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열려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와 오세정, 김경진, 신용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ICT(정보통신 기술) 접근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정보취약계층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찾도록 독려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많은 장애인 당사자, 개발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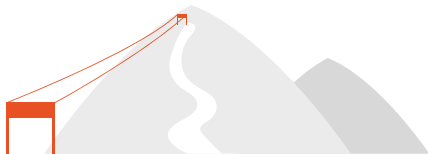


2016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 열려

지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동안 강원도에 위치한 하이 원리조트에서 ‘2016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가 열렸습니다.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과 함께한 이번 스키캠프는 시각장애인 참가자와 가이드 역할의 가야대학교 학생이 1:1로 매치되어 진행되었는데요.

스키를 타기에 앞서 준비운동으로 굳은 몸을 풀고 스키를 타 본격이 있는 시각장애인과 처음 타는 시각장애인을 구분하여 개인별 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로 시각장애인과 가이드는 2박 3일 동안 자유롭게 스키를 타며 겨울을 즐기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2016년 노원구청장 기관표창 수상

지난 12월 21일 서울특별시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2016년 4/4분기 노원구청장 기관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박준석 관장은 “이 표창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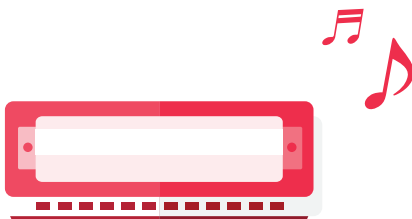


2017년 첫 프로그램, 하모니카 교실 열려

2017년 1월 3일, 새해를 여는 첫 프로그램으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라시하모니카 올림팀의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간 씩 진행되는 하모니카 교실에서는 동요, 옛 노래,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주 연습한 곡은 초청 연주회, 연말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선보이게 되는데요.

2017년 1년 동안 꾸려갈 라시하모니카 올림팀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시각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을 탈 때



시각장애인이 역 주변이나 대합실에서 혼자 헤매고 있을 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의사를 말로 전달하시고 매표, 화장실 등 출입구로의 이동을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도와주시고, 필요시 역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무실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강장에서 승차 위치 및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세요.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 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